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담당실장 :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81)

보도시점 : 2016년 4월 6일(수) 12시부터

## 고향기부제 도입땐 전북 374억원 유입기대

**전북연구원, 고향기부제 도입방안·재정효과 분석  
지방재정 악화 해소방안일환 전국적 이슈로 부상**
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이슈브리핑 ‘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’을 6일 발표했다.
- 고향기부제는 양성빈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4차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‘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’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.
-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은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유입효과를 분석해 고향기부제 도입이 지방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밝힌 전국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- 전북연구원이 통계청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출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, 전남 295만명, 경북 280만명, 충남 215만명, 경남 197만명, 전북 189만명 순으로 총 2,308만명에 이른다.

- 전북연구원은 출향주민 중 전라북도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기부 의사(24.5%)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(61.1%)가 소득세의 10%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유입효과를 분석했다.
- 연구결과 전라북도는 출향주민 189만명 중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(24.5%) 46만명, 이중 경제활동참여인구(61.1%)만 추산한 28만명이 자신의 소득세 10%에 해당하는 132,235원을 기부하면 약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다른 시·도의 경우 전남 529억원, 경북 452억원, 서울 404억원, 충남 389억원 순으로 총 3,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영 박사는 “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유입 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” 며 정부의 고향기부제 도입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.
- 앞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제 최저·최대 한도액과 기부금의 사용용도, 고향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필요하다.
- 한편, 고향기부제란 “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” 이다.
- 일본의 고향세가 주로 지방세에서 소득공제를 하면서 대도시권의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,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유입효과가 있으며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다.